

중국의 금융개혁 현황과 전망

KIEP 북경사무소(mspark@kiep.go.kr, Tel: 86-10-8497-2870)

차 례 ●●●

1. 최근 중국의 금융개혁 방향
2. 2014년 중국 금융개혁정책의 주요 내용
3. 2015년 중국의 금융개혁 전망

주요 내용 ●●●

- 최근 중국의 금융개혁 방향은 경제구조 전환과 산업구조 최적화에 대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18기 삼중전회는 향후 금융개혁의 네 가지 방향으로 △금융규제 완화 △다층적 금융시스템 건립 △개방형 금융시스템 건립 △시장실패 보완을 명확하게 제시함.
 - 시진핑(习近平) 정권 출범 이후 중국정부는 △금융 거시조정 △금융서비스 △금융개혁 △금융리스크 △대외개방 등의 분야에서 다방면의 금융 정책을 추진해왔음.
- 특히 2014년은 중국 금융개혁이 신속히 추진되었던 해로, 금리시장화 및 예금보험제도 추진, 위안화 국제화 및 금융개방, 융자난 완화 및 민영설립 등의 방면에서 여러 성과를 거둠.
 - 예금금리의 상한선이 기준금리의 1.2배로 확대되고 예금기준금리의 기간등급이 간소화되어 은행의 금리 결정권이 확대되었으며, 「예금보험조례(의견수렴안)」가 발표되어 예금보험제도의 시행이 가시화됨.
 - 위안화 환율 변동폭이 기존의 1%에서 2%로 확대되었으며, 통화스왑 계약 체결과 위안화 청산결제 은행 제도의 확장으로 위안화 국제화가 더욱 진전됨.
 - 중국인민은행이 선택적 지준율 인하정책을 시행하여 기업 융자난 완화를 시도하고, 중국은감회가 5개 민영은행의 설립을 비준하여 민간자본의 금융업 진출을 장려함.
- 2015년은 '12·5'규획을 마무리하고 '13·5'규획의 발판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며, △금리시장화와 환율시장화 추진 강화 △예금보험제도 출시 △선강통 제도 개시 △민영은행 설립확대 등의 개혁정책 시행이 예상된다.

1. 최근 중국의 금융개혁 방향

■ 최근 중국의 금융개혁은 경제구조 전환과 산업구조 최적화에 대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기존 금융개혁은 경제개혁에 종속되어 시스템 건설과 규모의 성장에 치중하던 양상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실물경제에 대한 지원기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음.

■ 2013년 중국의 18기 삼중전회는 향후 금융개혁의 네 가지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함.

- (금융규제 완화) △금리 시장화 추진 △위안화 환율 결정 메커니즘 개선 △국채 수익률 곡선 정비 등 금융자원의 가격 형성에 대한 시장의 역할을 확대하여 금융자원 배분의 최적화를 유도

- (다층적 금융시스템 건립) △금융 산업의 진입장벽 완화 △자본공급 제도 개혁 추진 △다양한 직·간접 융자시스템 건설 △빈곤층 및 저소득층의 금융수요 충족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 (개방형 금융시스템 건립) 위안화 자본 계정항목의 자유태환 실현 가속화

- (시장실패 보완) 공공재 융자 방면에서 정책성 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고, 체계적 금융리스크 방지를 위해 금융 관리 감독 부문의 협조 시스템 완비

■ 시진핑(习近平) 정권 출범 이후 중국정부는 △금융 거시조정 △금융서비스 △금융개혁 △금융리스크 △금융개방 등의 분야에서 다방면의 금융정책을 추진해왔음(표 1 참조).¹⁾

- 금융 거시조정 메커니즘 개선을 위해 대출 및 예금 금리와 은행 지급 준비율의 인하를 시행하는 한편, 금융 관리감독 정책을 강화 및 위안화 환율 결정 메커니즘 개혁 등을 추진

- 경제구조 조정, '3농' 및 소형기업 지원, 기업 융자비용 감축 등의 정책을 통해 금융서비스의 실물경제 지원 기능을 강화

- 금융개혁은 현 정권이 중점 추진 중인 일련의 개혁 중 하나로, 금융 관련 보험제도 및 대출 자산의 증권화 등 정책을 수립하는 동시에 금융리스크 최소화 방안을 모색

- 후강통(沪港通) 제도, 상하이(上海) 자유무역시범구 건설에 대한 금융지원, 통화스왑 등 금융 분야의 대외개방 확대를 위한 조치들을 시행

1) 중국전문가포럼(CSF: China Specialist Forum)(2015), 「시진핑 정권 출범 이후의 주요 금융정책 성과」 (1월 13일)

표 1. 시진핑 정권의 주요 금융정책(2013~14년)

| 정책 분야 | 정책 목표 | 시행 및 승인 | 주요 내용 |
|-------------------------|------------------------|--|---|
| 금융 거시조정 | 위안화 금리의 시장화 추진 | 2013.7.20 국무원 | - 금융기관 대출금리 하한선 폐지 |
| | | 2013.9.6 | - 국채 선물거래 개시 |
| | | 2014.11.22 국무원 승인 | - 연간 위안화 대출 및 예금 기준금리 각각 0.4%p, 0.25%p 인하 |
| | 선택적 지준율인하 (定向降准) | 2014.4.25 중국인민은행 | - 현(县) 소재 농촌상업은행 및 농촌협력은행 지급준비율 각각 2.0%p, 0.5%p 인하 - '3농' 및 소형기업 관련 대출 비중이 일정 비율에 달하는 상업은행의 지급준비율 0.5%p 인하 |
| | 금융 관리감독 강화 | 2014.9.13 중국은행감독 관리위원회 | - 금융기관 예금이격도 ²⁾ 기준 규정, 상업은행 월말 예금이격도 3% 초과 불허 |
| 위안화 환율 결정 메커니즘 개혁 | 2014.3.17 중국인민은행 | - 위안화의 대미달러 환율 변동폭 1→2%로 확대 | |
| 실물경제 지원 | 경제구조 전환 업그레이드 | 2013.7.5 국무원 | - 「경제구조 전환 업그레이드에 대한 금융지원 지도 의견(国务院办公厅关于金融支持经济结构调整和转型 升级的指导意见)」 |
| | '3농' 및 소형기업 지원 | 2013.8.8 국무원 | - 「소형기업 발전에 대한 금융지원 시행의견 (国务院办公厅关于金融支持小微企业发展的实施意见)」 |
| | | 2014.4.20 국무원 | - 「'3농'발전 금융지원에 관한 의견 (国务院办公厅关于金融服务“三农”发展的若干意见)」 |
| 기업 융자비용 감축 | 2014.8.5 국무원 | - 「기업융자비용 문제 완화 조치에 관한 지도의견 (关于多措并举着力缓解企业融资成本高问题的指导意见)」 | |
| 금융개혁 및 리스크 방지 | 금융리스크 방지 | 2013.8.20 국무원 | - 금융 감독관리 협력 부서 연합회의 제도 수립 |
| | | 2014.12.12 국무원 | - 예금보험제도 시행방안 통과 |
| | 자금 활성화 | 2013.8.28 국무원 | - 대출 자산의 증권화 추진 |
| | 자본시장 발전 촉진 | 2014.5.8 국무원 | - 위안화적격해외기관투자자 한도 및 시범운영 범위 확대 |
| 현대 금융시스템 완비 | 2014.8.13 국무원 | - 현대 보험서비스업 발전방안 발표 | |
| 대외 금융개방 | 대외 금융개방 | 2014.11.17 국무원 | - 후강통 제도 시행 |
| | | 2013~2014 각 관련 부처 발표 | -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건설 금융지원에 관한 지도의견 발표 |
| | | 2013.3~ | - 10개 국가와 통화스왑 계약 체결 |

자료: 중국전문가포럼(CSF: China Specialist Forum)(2015), 「시진핑 정권 출범 이후의 주요 금융정책 성과」.(1월 13일)

2) (월말)예금이격도=(매월 말일의 예금 잔액 - 당월 예금 일일평균) ÷ 당월 예금 일일평균 × 100%.

2. 2014년 중국 금융개혁정책의 주요 내용

가. 금리시장화와 예금보험제도

- 금리시장화 개혁은 가격개혁과 요소시장화 개혁의 주요 구성 요소 중 하나이며, 예금보험제도와의 관련이 깊음.
 - 금리는 화폐의 가격으로 경제활동 전반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금리 왜곡은 전체 시장가격의 왜곡으로 이어져 자원 배분의 효율을 저하시키며 경제구조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 중국은 금리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시행해왔으며 이로 인해 이중금리제(利率双轨制)가 형성되었는데, 이것이 중국경제구조 왜곡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됨.
 - 금리시장화는 금리의 결정과 전달을 시장의 역할에 맡기는 것으로 은행의 금리 결정권을 확대시키기 때문에, 안정성이 취약한 금융기관의 리스크가 확대됨.
 - 따라서 예금보험제도의 시행을 통해 예금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표 2. 중국 금리시장화 추진 경과(2014년 이전)

| 시기 | 주요 사건 |
|-------------|--|
| 1996년 6월 1일 | - 중국인민은행이 은행간 초단기융자 거래에 적용되는 콜금리를 완전 개방 |
| 1997년 6월 | - 은행간 채권 환매금리 개방 |
| 1998년 8월 | - 국가개발은행이 은행간 거래시장에서 최초로 시장화 기채 시행 |
| 1998년 | - 대출금리 상하한 폭 확대 |
| 1999년 | - 중국계 상업은행과 보험사의 3천만 위안 이상 고액 정기예금 금리 결정권을 허용, 예금금리시장화 개혁의 첫걸음 |
| 2000년 | - 외화대출금리와 미화 3백만 달러 이상의 고액 외화예금금리 개방 (미화 3백만 달러 미만 외화예금금리는 중국인민은행이 규제) |
| 2003년 11월 | - 미달러, 엔화, 홍콩달러, 유로화 소액 외화예금금리 하한선 폐지 |
| 2004년 1월 | - 대출금리 상하한 폭을 재차 확대. 상업은행과 도시신용사의 대출금리는 대출기준금리의 0.9~1.7배, 농촌신용사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의 0.9~2배 구간에서 허용 |
| 2004년 10월 | - 대출금리 상한선을 폐지하고, 하한선을 대출기준금리의 0.9배로 조정 - 예금금리 하한선을 폐지, 상한선은 예금기준금리로 고정 |
| 2012년 6월 | - 예금금리 상한선을 예금기준금리의 1.1배로, 대출금리의 하한선을 대출기준금리의 0.8배로 조정 |
| 2012년 7월 | - 대출금리 하한선을 대출기준금리의 0.7배로 재조정 |
| 2013년 7월 | - 대출금리 하한선을 폐지하면서 대출금리 전면 개방 시행 |

자료: 중국인민은행.

- 2014년 이후 중앙은행이 금리시장화 개혁 추진을 강화하고 새로운 중대조치들을 시행하면서 금융기관의 자주적 금리결정권이 더욱 확대되고 금리 형성 과정에서 시장의 역할이 강화됨.
 - 3월 1일 중국인민은행이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의 소액 외화예금 금리 상한을 폐지
 - 11월 21일 중국인민은행은 금융기관의 위안화 기준금리를 하향 조정하고, 금리시장화와 관련된 여러 주요 조치를 시행
 - 위안화 1년 만기 대출기준금리를 5.6%로 0.4%p 하향 조정, 1년 만기 예금기준금리를 2.75%로 0.25%p 하향 조정
 - 위안화 예금금리 상한선을 예금기준금리의 1.1배에서 1.2배로 조정
 - 예금기준금리의 기간등급(期限档次)을 간소화하여 금리시장화 결정의 공간을 확대
 - 상하이 은행간 금리(SHIBOR)와 시장이율의 자율 결정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양도성예금증서(同业存单) 거래를 확대
- 예금보험제도는 예금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금융시스템 안정을 보장하는 중요한 기초제도이며, 금리시장화 개혁을 비롯한 금융개혁의 주요 단계 중 하나임.
 - 예금보험제도의 건립은 국가 정책의 중심이 금융기관 보호에서 예금자 보호로 전환되어, 예금자의 이익이 더욱 직접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됨을 의미
 - 국가는 법률 조례의 형식을 통해 예금보험제도를 건립하여 예금자에게 법률적 보장을 제공하고, 예금 보험기금의 형식을 통해 은행 파산 시 배상자금을 마련하여 물질적 보장을 제공
 - 예금보험제도 참여 은행은 해당 은행이 유치하고 있는 예금 규모와 부담하는 리스크의 크기에 근거하여 예금보험공사(기금)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납부
 - 해당 은행에 위기나 파산이 발생하면 예금보험공사(기금)는 적시에 예금주의 손실을 보상해 줌으로써 중소 예금주의 이익을 보호
 - 예금보험제도를 통해 중소형은행의 신용도와 경쟁력이 제고되어, 중국 은행산업의 전반적 수준이 상승하고 중국 금융 안전망이 확립

표 3. 중국 예금보험제도 추진 경과(2014년 이전)

| 시기 | 주요 내용 |
|-------|---|
| 1993년 | - 「국무원 금융체제개혁에 관한 결정(国务院关于金融体制改革的决定)」에서 최초로 예금보험제도와 기금의 건립을 제안 |
| 1997년 | - 중국인민은행이 예금보험 과제팀을 조직하여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진행 |
| 2004년 | - 중국인민은행 금융안정국 예금보험처가 설립되어 연말부터 「예금보험조례(存款保险条例)」 제정에 착수 |
| 2005년 | - 금융안정국이 중국예금보험제도 기초방안을 완성하여 외부에 발표, 국무원의 원칙적 비준을 획득 |
| 2008년 | - 양회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报告)에서 예금보험제도를 연내에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세계 금융위기 발생으로 연기 |

표 3. 계속

| | |
|-----------------|---|
| 2009년, 2010년 | - 중국인민은행이 두 차례 예금보험제도 방안을 보고하였으나, 시기상조 이유로 비준 불발 |
| 2012년 | - 중국인민은행은 「2012년 금융안정보고(2012年金融稳定报告)」에서 예금보험제도 시행 환경이 조성되었음을 표명 |
| 2013년 | - 18기 삼중전회 결정에서 예금보험제도 건립을 명확히 제안 |

자료: 『北京晨报』(2014), 『银行倒闭 50万内存款拟全偿付』. (12月1日)

■ 2014년 11월 30일 국무원과 중국인민은행은 「예금보험조례(의견수렴안)存款保险条例(征求意见稿)」을 발표

- 2014년 3월 리커창 총리가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업무보고에서 예금보험제도 추진이 2014년 주요 업무 과제를 강조, 이후 국무원과 인민은행은 다음의 내용으로 「예금보험조례(의견수렴안)存款保险条例(征求意见稿)」을 발표

- 모든 예금 금융기관은 반드시 예금보험제도에 가입해야 하며, 동일 예금주가 동일한 금융기관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보상한도는 원리금 합계 50만 위안임.
- 중국인민은행의 2013년 연말 데이터에 의하면 50만 위안의 최고한도로 전체 예금자 99.63%의 저축 전액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며,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법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 청산 자산 중에서 배상 받을 수 있음.
- 예금보험 보장 범위에는 위안화 예금과 외환 예금이 포함되며, 금융기관의 고위 관리자가 자신이 재직하는 금융기관에 예금한 예금 및 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이 예금보험기금 관리기구 규정이 보장하지 않는 기타 예금은 제외됨.

나. 위안화 국제화 및 금융개방

■ 중국의 위안화 환율시장화는 18기 삼중전회의 목표 임무 중 하나이며, 현재 기존의 관리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과정에 있음.

- 위안화 환율 개혁의 단기 목표는 중국 자본계정 항목의 개방, 위안화 자유태환 실현 및 위안화 국제화의 제도적 기초 확립임.
- 위안화 환율 개혁의 장기 목표는 위안화 국제화 가속을 통해 주요국의 외환보유고에 위안화를 포함시키는 등 국제 통화시스템에서 위안화의 위치를 확고히 다지는 것임.

표 4. 위안화 환율 개혁 추진 경과(2014년 이전)

| 시기 | 주요 내용 |
|-----------|--|
| 1994년 1월 | - 이중환율제(双重汇率制)에서 단일환율제(单一汇率制)로 전환 - 소폭의 변동을 용인하는 관리변동환율제를 새롭게 도입하며 공식 환율을 미화 1달러당 5.8위안에서 8.7위안으로 조정하여 33% 평가절하를 단행 |
| 1996년 12월 | - 무역거래에서의 위안화와 외화 완전 대환을 허용 |
| 2005년 7월 | - 기존의 미달러화 단일 페그제에서 복수 통화를 참고하여 변동폭을 결정하는 관리변동환율제로 전환 - 위안화의 대미달러 환율은 8.27에서 8.11로 2.1% 절상 |
| 2007년 5월 | - 환율변동폭을 기존의 0.3%에서 0.5%로 확대 |
| 2008년 7월 | - 세계금융위기 발생과 악화에 따라 중국경제 안정화정책의 일환으로 위안화 환율을 미화 1달러당 6.83위안으로 고정 |
| 2010년 6월 | - 미화 1달러당 6.83위안의 고정환율을 포기하고 관리변동환율제로 복귀 |
| 2012년 4월 | - 환율 변동폭을 기존의 0.5%에서 1.0%로 확대 |

자료: 중국 현지 언론사 자료를 종합하여 정리.

- 중국인민은행은 2014년 3월 17일부터 위안화 대 미달러 환율의 변동폭을 기존의 1%에서 2%로 확대함.
- 2012년 4월 이후 약 2년 만에 환율 변동폭 확대를 선언한 것으로 위안화 국제화를 향한 환율시장화 개혁 의지를 엿볼 수 있음.
- 2014년 중국은 스위스·스리랑카·러시아·카타르·캐나다 중앙은행과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런던·프랑크푸르트·서울·파리·룩셈부르크·도하·토론토·시드니·쿠알라룸푸르에 위안화 청산결제은행 설립을 계획함.
- 2014년 10월 19일 중국인민은행 부행장 후샤오롄(胡晓炼)은 역외위안화업무 5주년좌담회(跨境人民币业务五周年座谈会)에서, 위안화는 이미 중국의 2대 역외지불결제화폐가 되었음을 표명
 - 위안화 역외수지가 전체 역외수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25%에 달하며, 화물무역 수출입의 위안화 결제 비중 또한 15%를 초과
- 2014년 11월 17일 후강통(沪港通)³⁾의 정식 개통 이후 상하이와 홍콩 두 지역의 쌍방향 투자 편의성이 대폭 제고됨.
- 후강통은 홍콩 거주자가 내륙에 투자하는 후구통(沪股通)과 내륙 거주자가 홍콩에 투자하는 강구통(港股通)으로 분류
 - 후구통의 해당 주식은 상하이 증권거래소 상증(上证)180지수·상증380지수의 구성 주식과 상하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A+H주식

3) 후강통의 정식 명칭은 ‘상하이 홍콩주식거래 상호연계 메커니즘 시범실시(沪港股票交易互联互通机制试点)’임.

- 강구통의 해당 주식은 홍콩연합거래소 항생종합대형주지수(恒生综合大型股指数)·항생종합중형주지수(恒生综合中型股指数)의 구성 주식과 홍콩연합거래소 및 상하이증권거래소에 상장된 A+H주식
- 후강통의 개통은 내륙 시장과 홍콩 시장의 상호 연계를 통해 두 지역에서 ‘자원 공유, 기회 공유’의 시너지를 창출하여 두 시장의 종합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홍콩의 국제금융센터 지위를 공고히 하는데 도움을 주며, 시장 효율을 높이고 시장의 자원 배분 역할을 강화⁴⁾

다. 용자난 완화와 민영은행 설립

- 2014년 중국인민은행은 용자난 완화를 위해 선택적 기준을 인하(定向降准)를 시행하고 시장 금리의 하향 조정을 유도하였으며, 타 부처와 공동으로 관련 문건들을 발표함.
 - 2014년 4월과 6월 중국인민은행은 두 차례의 선택적 기준을 인하를 실시하였으며, 각 상업은행들도 대출확대·대출구조 개선·상품 및 서비스 혁신 등의 조치를 통해 기업의 발전을 지원
 - 2014년 7월 중국인민은행·은행감독관리위원회(이하 은감회)·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회)·보험감독관리위원회·외환관리국이 「금융기관 동업업무규범에 관한 통지(关于规范金融机构同业业务的通知)」를 공동 발표하여 금융시스템 효율 제고를 통한 용자 자원의 적절한 배치와 용자비용의 경감을 유도
- 국무원도 수차례의 의견 제출과 회의를 통해 기업 용자비용 문제 완화를 위한 종합적인 조치 시행을 촉구함.
 - 2014년 8월, 국무원 판공청은 「기업용자비용 문제 완화 조치에 관한 지도 의견(关于多措并举着力缓解企业融资成本高问题的指导意见)」을 발표하여, 기업 용자비용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며 10조의견(十条意见)을 출시
 - 2014년 9월 중국인민은행·은감회·재정부가 「상업은행 예금이격도 관리 강화와 관련된 사항의 통지(关于加强商业银行存款偏离度管理有关事项的通知)」를 공동 발표하여 위 의견의 요구를 뒷받침
 - 2014년 10월 국무원은 재차 의견을 제출하며 △세금우대정책 시행 △소기업 창업기지 건설 △창업투자 지도기금 설립 △용자담보정책 개선 △소형기업 금융서비스 전문 영업기구 설립의 확대 등의 조치를 제안
 - 2014년 11월 국무원 상무위원회는 △예대비율지표 탄력성 강화 △'3농(三农)'과 소형기업에 대한 인터넷금융 서비스 확대 △소액대출보증보험 시범시행 추진 △상업은행 업적평가 개선 등의 조치를 제안
 - 이 결정은 용자비용을 감소시키고 용자비용과 관련한 세금을 감면하여, 매년 약 400억 위안의 비용 경감 효과가 있음.⁵⁾

4) 중국인민대학 재정금융학원 부원장 자오시쥘(赵锡军).

■ 중국정부는 기업 용자난의 완화와 실질적 독점 산업이라 볼 수 있는 은행업의 구조 조정을 위해, 2013년부터 민영은행의 설립을 장려하고 민간 자본의 금융업 진출을 확대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였음.

- 2013년 7월 국무원 관공청(国务院办公厅)은 「금융의 경제 구조조정 및 업그레이드 지원에 관한 지도의견(关于金融支持经济结构调整和转型升级的指导意见)」⁶⁾을 발표하며 민간 자본의 금융업 진출 확대를 제안
- 2013년 11월 개최된 18기 삼중전회는 「전면적 개혁심화에 관한 중대문제 결정(中共中央关于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问题的决定)」에서 조건에 부합하는 민간자본의 중소형 은행 등 금융기관 설립을 허용할 것을 표명

■ 2014년 중국은감회가 5개 민영은행의 설립을 비준하면서 민간자본의 금융업 진출에 대한 정책적 장애가 제거됨.

- 2014년 7월 25일 선전 치엔하이 웨이중은행(深圳前海微众银行), 원저우 민상은행(温州民商银行), 천진 진청은행(天津金城银行)의 설립 신청을 비준
- 2014년 9월 26일 저장 왕상은행(浙江网商银行), 상하이 화루이은행(上海华瑞银行)의 설립 신청을 비준
- 2014년 12월 12일 치엔하이 웨이중은행은 은감회로부터 개업 인가를 획득

표 5. 중국은감회의 5개 민영은행 설립 비준 현황

| 은행 명칭 | 지역 | 등록 자본금 | 발기인(지분율) | 비준일자 |
|--------------------|-----------------|--------|---|--------------|
| 치엔하이웨이중 은행(前海微众银行) | 광둥성 선전(广东省深圳市) | 30억 위안 | 腾讯(30%) 百业源(20%) 立业集团(20%) | 2014년 7월 25일 |
| 민상은행(民商银行) | 저장성 원저우(浙江省温州市) | 20억 위안 | 正泰集团(29%) 浙江华峰氨纶(20%) | |
| 진청은행(金城银行) | 텐진(天津) | 50억 위안 | 华北集团(20%) 麦购集团(18%) | |
| 화루이은행(华瑞银行) | 상하이(上海) | 40억 위안 | 上海均瑶集团(30%) 美特斯帮集团(15%) | 2014년 9월 26일 |
| 왕상은행(网商银行) | 저장성 항주(浙江省杭州) | 30억 위안 | 浙江蚂蚁小微金融(30%) 上海复星工业技术(25%) 万向三农集团(18%) 宁波市金润资产(16%) | |

자료: 중국은감회.

5) 『中国城乡金融报』(2014), 「2014年金融改革步伐」.(12月12日)

6) ‘금십조(金十条)’라고도 불림.

3. 2015년 중국의 금융개혁 전망

- 2015년은 ‘12·5’규획을 완성하고 ‘13·5’규획의 성공적 시작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의미를 갖는 중요한 시기이며, 금융개혁은 다른 분야의 개혁과 마찬가지로 ‘뉴노멀(新常态)’로의 전환에 적응하며 안정적이고 건실하게 진행되어야 함.
- 중국인민은행과 국무원 등 관련 부처들은 각각 금리시장화·예금보험·환율시장화·민영은행·대외개방 등 2015년 금융개혁의 주요 업무 방향과 목표를 제시함(표 6 참조).
 - 중국인민은행은 1월 8일부터 9일 오전까지 열린 2015년 업무회의에서 금융개혁개방과 관련된 11개 주요 임무를 제시
 - 2015년 1월 23일 국무원신문관공실에서 개최한 ‘2014년 금융개혁·실물경제지원 발전 실적’ 기자 브리핑에서 중국인민은행 부총재 판공성(潘功胜)은 2015년 금융개혁의 5대 중점 분야를 제시
 - 2015년 3월 5일 개최된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报告)에서는 2015년 중국 금융개혁 관련 주요 추진 업무를 제시

표 6. 2015년 중국 금융개혁의 주요 추진 방향

| 관련 행사 및 문건 | 주요 업무 방향 |
|--------------------------|---|
| 중국인민은행 2015년 업무회의 | 1) 금융법치시스템의 건립, 법에 의거한 행정과 권한 이양의 지속적인 추진 2) 안정적인 화폐정책의 지속적 시행 3)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강화 및 용자비용 문제 완화 4) 금융 개혁개방 가속 5) 위안화 역외 사용 확대 6) 금융 시장의 협조적 발전 추진 7) 지역적 성격의 금융리스크 발생에 대한 체계적 억제력을 위한 종합적인 조치 시행 8) 국제 경제금융정책과의 공조 및 관련 규칙 제정에 참여 9) 금융서비스 및 관리의 현대화 추진 10) 인민은행 내부 당 체계의 확고한 구축 11) 엄격한 업무이행과 내부관리 |
| 국무원신문관공실 기자 브리핑 | 1) 금리 시장화 추진 가속 2) 위안화 환율 시장화 형성 메커니즘 개선 강화 3) 자본항목 계정내 태환가능 항목확대 4) 예금보험제도 시행 추진 5) 정책성 금융기관 개혁방안 실시 |
| 2015년 정부업무보고 (政府工作报告) | △ 민간자본의 중소형은행 등 금융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한도 제한을 두지 않음. △ 농촌신용사 개혁 심화 △ 정책성 금융의 공공재 공급 역할 강화 △ 예금보험제도 추진 △ 금리시장화 추진과 중앙은행의 이율 조절기제 개선 |

표 6. 계속

| | |
|--------------------------|---|
| 2015년 정부업무보고 (政府工作报告) | △ 위안화 환율 균형 유지와 쌍방향 변동의 탄성 강화 △ 위안화 자본 계정 태환 실현, 위안화의 해외 사용 확대, '선강통(深港通)' 시범시행 추진 |
|--------------------------|---|

자료: 중국인민은행, 중국국무원신문판공실, 란민왕(人民网).

- (금리시장화) 2015년 3월 5일 개최된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제3차 회의에서 중국인민은행 총재 저우샤오촨(周小川)은 2015년내 예금금리 상한선이 폐지되면서 예금금리 전면 개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시사
 - 2014년에 예금금리 상한선이 기준금리의 20%까지 확대된 것에 이어, 2015년 3월 1일부터 기준금리의 30%까지 확대
 - 중국인민은행은 예금금리 상한폭을 확대하는 동시에 1년 만기 대출기준금리를 5.35%로 0.25%p 하향 조정하고 1년 만기 예금기준금리를 2.5%로 0.25%p 하향 조정
 - 저우샤오촨 총재는 예금금리 상한폭의 지속적 확대는 금리 전면 개방의 마지막 단계가 임박했다는 의미를 역설
 - 중국인민은행 부총재 이강(易綱)은 중국 내 금융기관은 물론 가계와 기업들도 일정 기간의 금리 시장화 과정을 거치면서 적응해왔기 때문에 중국 금리 시장화 환경은 점차 성숙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표명

- (위안화 환율시장화) 환율시장화는 중국인민은행 업무회의의 11개 주요업무와 정부업무보고의 주요 추진업무에 모두 포함되는 중요한 개혁 목표이며, 2015년에 환율 변동폭 확대 등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인민은행 부총재 판공성(潘功胜)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환율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대하고, 위안화 환율 변동의 탄력성을 강화할 것을 표명
 - 흥업은행(兴业银行) 수석경제학자 루정웨이(鲁政委)는 2015년 위안화 환율 변동폭이 현재의 2%에서 4%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예금보험) 2015년 3월 12일에 개최된 12기 전인대 3차회의 기자회견에서 중국인민은행 총재 저우샤오촨은 예금보험제도가 2015년 상반기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2014년 11월 30일 의견수렴안 발표 후 현재까지 의견 수렴이 완료되어, 준비 과정이 전체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표명
 - 한편 2015년 3월 15일 전인대 회의 폐막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무원 총리 리커창(李克强)은 올해 안에 예금보험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언급

■ (선강통 시행) 2014년 11월 후강통 시행에 이어, 선전과 홍콩의 주식시장을 연계하는 ‘선강통(深港通)’거래도 2015년 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됨.

- 2015년 1월 19일 중국증감회 국제부 주임 치빈(祁斌)은 공개석상에서 ‘후강통 메커니즘의 심화를 통해 선강통을 추진할 것’이라고 표명
- 2015년 3월 8일 증감회 시스템 양회 대표회의에서 선전증권거래소 총리 송리핑(宋丽萍)은 선전증권거래소가 선강통 개통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중이며, 상반기에 비준을 얻어 하반기에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
 - 선전증권거래소, 홍콩증권거래소 및 중국증권등기결산유한공사가 현재 각 방면의 준비작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미 선강통 방안의 설계가 완료되어 시스템 기술개발에 착수한 상황임.
 - 중국증감회와 홍콩증감회의 정식 인가를 획득하면, 선전증권거래소가 시장참여자를 조직하여 업무 및 기술 준비작업을 거친 후 거래 시행이 가능함.
- 2015년 3월 12일 저우샤오환 인민은행 총재도 선강통 시행에 관한 관점과 기대를 표명⁷⁾
 - 후강통의 시행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편이지만 일부 보수적인 부분이 있으며, 선강통을 2015년 안에 시행하여 시장에서 후강통보다 더 큰 기능을 발휘하게 하겠다고 강조함.

■ (민영은행 설립) 금융개혁의 심화에 따라 많은 민영은행이 설립되어 시장에서 경쟁을 유도할 것이며, 이는 은행업의 지배구조와 경영관리 방식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 오고 중국경제의 업그레이드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 이미 관련 부처들은 민영은행의 설립 범위 확대를 명시하고, 민영은행 발전을 위한 관련 법안을 지속적으로 출시
- 2015년 3월 정부업무보고에서도 민영은행의 설립에 대해 ‘(조건이) 성숙하면 인가할 것이며, 한도액에 제한을 두지 않음(成熟一家, 批准一家, 不设限额)’을 특히 강조
 - 이는 민영은행 설립 가속화를 통해 금융기구의 개혁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대변
- 민영은행 설립 확대와 발전은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능력과 소형기업 및 서민층에 대한 금융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기업 융자난 완화는 물론 중국경제 구조의 업그레이드에도 중요한 역할을 발휘

7) 『第一财经日报』(2015), 「周小川谈股市：深港通年内推出」. (3月13日)

<참고자료>

- 『经济研究参考』. 2014. 「建立健全支持我国经济转型升级的现代金融体系」(6月).
- 『中国经济新闻网』. 2014. 「未来人民币汇率变化的两大目标」(7月21日).
- 『金融时报』. 2014. 「加快利率市场化还需哪些配套改革」(11月29日).
- 『北京晨报』. 2014. 「银行倒闭 50万内存款拟全偿付」(12月1日).
- 『中国城乡金融报』. 2014. 「2014年金融改革步伐」(12月12日).
- 『中国城乡金融报』. 2015. 「2015年金融改革十大猜想」(1月2日).
- 『中国金融杂志』. 2015. 「2014年中国金融十件大事」(1月4日).
- 『上海证券报』. 2015. 「今年金融改革突破口应是破解利率双轨制」(1月8日).
- 『中国金融新闻网』. 2015. 「央行提2015年11项任务 加快推进金融改革开放」(1月12日).
- 『证券时报』. 2015. 「祁斌:深化沪港通机制 推动深港通」(1月19日).
- 『第一财经日报』. 2015. 「新常态:更为灵动的汇率新时代」(1月20日).
- 『职业教育』. 2015. 「关于我国试点建立首批民营银行的几点思考」(1月下旬).
- 『中国金融家』. 2015. 「2014中国金融十大新闻」(1月).
- 『人民网』. 2015. 「2015年政府工作报告」(3月5日).
- 『金融时报』. 2015. 「从“不设限额”开始」(3月7日).
- 『南方日报』. 2015. 「“深港通”有望上半年获批」(3月9日).
- 『中国经济网』. 2015. 「今年金融改革将有实质性进展」(3月13日).
- 『第一财经日报』. 2015. 「周小川谈股市:深港通年内推出」(3月13日).
- 『南国早报』. 2015. 「央行多箭齐发推进金融改革」(3月14日).
- 『上海商报』. 2015. 「多项金融改革或年内“开花结构”」(3月18日).

자료 정리: 인민대학 경제학원 박사과정 한지민(hanzhimin8@gmail.com)